

금리 인하로 돈의 흐름 바뀐다

은행, 예대마진 축소 수입줄어 생존전략 고심

주식시장·제2금융권으로 자금 몰려 대조적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로 돈의 흐름이 바뀌면서 금융권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금융권은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제2금융권, 증권사 등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자금시장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하반기 영업전략을 재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기 흐름에 민감한 주

식시장에서 엿보인다. 정부의 시장활성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늘고 있다. 1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6조1000억원으로 금리인상 전날(13일 15조5000억원)과 비교해 영업일 기준으로 2일만에 6000억원 가량 늘었다. 금리 인하가 예고된 한달전 14조7000억원(7월16일)보다는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단기자금 성격의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머니마켓펀드 역시 45조 2000억원, 9조2000억원으로 한달새 각각

1조6000억원, 1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금리가 0.2~0.5% 포인트 가량 높은 신탁,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도 자금이 쏠리고 있다.

신탁중앙회 관계자는 “신탁에 이달 18일까지 들어온 돈이 7월말보다 2515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측도 “아직 예금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세는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협은행의 경우 신규상품인 ‘농사랑 동행대출’이 전남에서 출시 2개월 만에 4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여신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예대마진 축소로 이자수입 감소와 자금 이탈을 감수해야하는 시중은행의

분위기는 주식시장과 제2금융권과는 사뭇 다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며칠새 자금의 흐름에 변화 조짐이 있다”며 “예금인출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고 돈을 어디다 댈까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특히 고액 자산가 등 고객이탈을 막기 위해 상품군을 다양화하는 노력도 강화하는 추세다.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지수연동예금 등 중위험 중수의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고 중국위안화 예금 등으로 상품을 다변화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4.21 (-28.57)	▲ 금리 2.58% (+0.01)
▲ 코스닥 562.52 (+0.56)	▲ 환율 1023.60원(+0.90)

트렉스타, 아웃도어 신발시장 아시아 1위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가 올해도 세계 아웃도어 신발 시장 랭킹에서 아시아 1위 자리를 굳혔다.

21일 트렉스타에 따르면 유럽 아웃도어 미디어그룹 EDM가 발간하는 아웃도어 전문지 ‘컴퍼스(Compass)’가 발표한 글로벌 아웃도어 신발 시장 랭킹에서 트렉스타가 11.3%의 성장률로 아시아 1위, 전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트렉스타는 1997년 브랜드 론칭 이후 네스핏 기술, 아이스그립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 데 이어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유통망을 구축, 세계 60여 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독일에서 열린 유티피안 아웃도어 박람회와 미국 아웃도어 리테일쇼 등에서도 네덜란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아프리카에는 아웃도어 신발 제품뿐 아니라 의류 라인 유통도 계획하고 있다.



컴퍼스지 트렉스타 관련 기사.

권동철 트렉스타 대표는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의 급증으로 아웃도어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각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자체적인 기술력에서 차별성을 가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기술력에 대한 투자로 한국 브랜드로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변리사 연봉 5억6000만원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 유지

지난해 소득이 가장 높았던 전문직은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00만원에 이르는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업은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변호사(4억9000만원)와 관세사(2억9600만원)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회계사(2억8500만원)와 세무사(2억5400만원), 법무사(1억4700만원), 건축사(1억1900만원), 감평가(6900만원) 순이었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수입은 5억 87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 3억8800만원, 관세사 3억1900만원, 회계사 2억6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2억4000만원, 법무사 1억3400만원, 건축사 1억1000만원, 감평가 9400만원 등이 뒤를 이어 전체적인 순위는 지난해 순위와 동일했다.

그러나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 대비 평균 부가가치세액 비율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아 돈은 많이 벌지만 부가세는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오히려 감평가의 수입 대비 부가세액 비율이 9.24%로 가장 높았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경우 외국법인과 거래 등 부가세영(0)세율을 적용받는 외화획득 사업소득 등이 많아 부가세액 납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새 스마트TV 콘텐츠 선봬

주요 콘텐츠는 게임 사용자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끄는 ‘니드 포 스피드’, ‘모스트 원티드’, ‘리얼 풋볼’ 등으로, 이들 게임은 삼성 스마트TV 게임 패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5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4에서 새로운 스마트TV 콘텐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콘텐츠는 게임 사용자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끄는 ‘니드 포 스피드’, ‘모스트 원티드’, ‘리얼 풋볼’ 등으로, 이들 게임은 삼성 스마트TV 게임 패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5년 불구 발주 부진

전남 3.3% 불과... 10개 시군 ‘0’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하도급 불공정 거래 근절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 가운데 시행 5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보기 식 행정 탓에 여전히 발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된 공사는 42건으로, 종합건설사 전체 발주공사 1239건의 3.3%에 그쳤다. 발주금액도 618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 전체 발주금액(1조58528

억원)의 3.3%에 불과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도급하도록 한 제도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131건, 1487억원)과 부산(66건, 1071억원)에 이어 전남이 전국 3위 수준이지만 전남지역 전체 경쟁입찰 발주건수 중 종합이 62%(1239건), 전문이 38%(745건)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실제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전남도(19

건·281건)와 여수(10건·136억원), 순천(7건·122억원), 광양(2건·35억원) 등 도와 6개 시·군에서 1건 이상의 발주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6개 시·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용한 발주 건수가 전무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지 않은 지자체만 10곳에 이른다.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조제 건설사업을 전량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신안과 같은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제도적용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터미널 ‘착한 브랜드’ 대상 수상

금호터미널(유·스퀘어)이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시상식에서 종합 베스트터미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금호터미널은 브랜드명인 ‘유·스퀘어’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터미널로서의 기본적인 서비스 환경, 유·스퀘어문화관의 공연, 예약, 안내, 관광 환경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사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터미널은 고객의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전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안내센터에 24시간 근무자를 상주시키는 등 ‘소비자 편의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은 한국경영과학회 산하인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후원을 받아 올해 처음 제정한 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를 찾아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 ‘직장인 급여통장’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22일부터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혜택 및 금융편익을 강화한 ‘직장인 급여통장’을 새롭게 출시·판매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광주은행 ‘직장인 급여통장’은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하면 다른 조건 없이 다양한 수수료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는 물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중 하나인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또한, 급여통장 가입자는 광주은행 적금가입 또는 대출신청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율 우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광주은행 상품개발팀 박기원 팀장은 “입출금 거래가 왕성한 직장인들의 금융거래패턴을 감안, 수수료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담은 상품”이라며 “기존의 급여우대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좋은
- ★ 사무실 적합, 전세 올수리 시세/분양가-4억
-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좋은
- 전세 올수리, 주거겸/사무실 겸용
- ★ 시세/분양가-2억
-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 매매-6500만원
- 일시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010-3605-5000

콘도/별장/펜션

문의, 010-3605-5000

-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 전기, 수도, 가스 개별
-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 화개장터, 상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56평 각 1세대
-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 28평 - 9000만원
- 56평 - 2억원

수익성 있는 부동산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대자공인중개사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 2차선 포장도로로 접
- 전면 85m 접
- 매매가 2억1800만원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입합니다.

★ **급매물 접수합니다**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공동 투자 가능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월 10% 이상 이자 지급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